

本貫의 累層的 意味와 그 起原에 대한 歷史地理的 探索

全 種 漢*

Multi-layers of Geographical Meanings in the Korean *Bonkwan*

Jong-Han Jeon*

요약 : 社會歷史地理學은 지리적 현상을 사회집단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해석한다. 이 글은 한국 성씨집단을 지리적 사회집단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본관 문제를 사회역사지리학의 시각에서 살핀 것이다. 필자는 현재의 本貫 概念이 단일한 의미가 아닌 다양한 의미층들을 갖는다고 인식하였다. 고려전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우리나라의 本貫 개념에는 그 후 조선시기까지 몇 개의 意味層이 누적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고 그 起原을 社會歷史地理的 觀點에서 해석하였다. 결과적으로 本貫의 의미는 시대마다, 성씨집단에 따라 다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요약하면, 實際로서의 본관, 起原으로서의 본관, 權力에의 意志로서의 본관이다. 첫 번째 의미층은 '本貫=居住 場所'의 의미로서 시기적으로 고려시기에, 두 번째 의미층은 '本貫=起原 場所'의 의미로서 本貫과 居住地가 분리된 상황 즉 여말선초에, 그리고 세 번째 의미층은 '本貫=象徵 場所'라는 소위 權力에의 意志를 보여주는 虛構的이고 象徵的인 意味로서 조선 전기를 과도기로 하여 조선중기의 전반기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오늘날 우리나라 각 성씨집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本貫의 意味는 이상의 세 가지의 意味 중 한 가지 이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씨집단별 본관의 의미 문제는 宗族集團의 居住地 起原과 空間的 移住過程이라는 보다 넓은 주제의 틀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本貫이 단순한 物理的 空間을 넘어선 컨텍스트상의 社會的 構成體이기 때문이다.

주요어 : 사회역사지리학, 성씨집단(종족집단), 본관, 거주 장소, 기원 장소, 상징 장소

Abstract : Social historical geography is interested in geographical elements related with a social group and perceives the diverse dimensions of a geographical phenomen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interpret the multi-layers of meanings associated with the ancestral places of lineage group, i.e. *Bonkwans*(本貫) in Korea with a viewpoint to social historical geography. The term *Bonkwan* does not appear in any historical records prior to the 10th century. Thereafter it is used continuously by lineage groups or by government agents till the 17th century. I believe that during this long-term period *Bonkwan* assumed multiple geographical meanings which varied from period to period, such as residence place, a place of origin, and a place symbolizing power. Each layer of meaning was the product of a certain period and of a certain lineage. Its first meaning was produced in the early Koryo kingdom. Its second meaning from late in the same kingdom to the early part of Chosun kingdom. Its third meaning since the middle of Chosun kingdom.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Bonkwan* correctly, we need to see it at a large perspective. That is to say, it needs to be viewed in the framework of immigration study of each lineage because the term is more of a social construct than a fixed notion.

Key Words : social historical geography, lineage group, Bonkwan, residence place, origin place, symbolic place

1. 序 論

한국의 姓氏集團¹⁾은 姓氏²⁾와 本貫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시켜 자신들의 正體性을 표시한다. 각 성씨집단은 父系 혈통의 血緣의 出系를 의미

하는 姓氏와 소위 그들의 空間的 起原地라 간주되는 本貫을 통해 他姓氏集團과 차별성을 갖게 된다. 한국 성씨집단은 宗家와 本貫 개념이 매우 강하다. 특히 단순한 居住地의 의미를 넘어선 성씨집단의 空間的 發祥地로서의 本貫 개념은 중국

* 한국고원대학교 지리교육과 대학원 박사과정(Ph.D. Candidat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및 일본과 달리 한국의 성씨집단만이 갖는 고유한 요소이다. 가령 淸州韓氏의 경우, 韓氏라는 성씨를 통해 1차적으로 자신들을 韓氏 이외의 타성씨집단과 구분하며, 本貫인 淸州를 통해 동일 명칭의 韓氏이면서도 혈통이 다른 谷山韓氏와 구별을 한다.³⁾ 이렇게 姓氏 명칭이 동일한 경우 本貫을 사용하여야만 혈연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本貫은 혈연집단들이 中國의 성씨제도를 모방하여 혈연적 연관성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각 處에서 중첩적으로 사용한 姓氏名稱에 대해 空間的 領域을 표시하여 줌으로써, 각 성씨집단의 血緣的 系譜와 空間的 領域性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 주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 성씨집단은 本貫을 통해서 地理的 社會集團⁴⁾의 속성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姓氏는 中國 성씨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고려시기를 전후로 널리 보급된 것이라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나라 성씨집단 중 상당수는 始祖 起原을 中國에서 찾고 있다.⁵⁾ 그러나 姓氏와 달리 本貫의 경우, 제도 자체는 중국을 모방한 것이지만 本貫이 취하고 있는 地名은 중국 기원이 아니며 대부분 우리 나라 각 지방의 行政地名을 취하고 있다. 오늘날 本貫으로 쓰이는 地名은 고려 혹은 조선시기의 우리 나라 州郡縣 地名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한국의 성씨집단 중 1985년 현재 인구 1만 이상의 성씨는 본관수로는 321개, 성씨수로는 98개 집단이다. 이 중 본관을 우리 나라의 지명이 아닌 중국의 지명을 취하고 있는 성씨집단은 曲阜孔氏, 西蜀明氏, 新安朱氏, 潁陽千氏, 浙江片氏 등 소수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지리학계를 비롯한 사회학, 인류학, 그리고 역사학계에서는 姓氏集團을 同族集團, 同姓集團, 氏族集團, 宗族集團 등으로 명명하면서⁶⁾ 비교적 많은 글들이 발표되어 왔다.⁷⁾ 연구는 대부분 姓氏와 本貫 중 姓氏 측면 즉 宗法思想, 親族制度, 分派原理, 그리고 성씨집단의 機能과 그 變化 등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本貫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단편적 연구가 수행된 것이 사실이나, 本貫을 主題로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한 著書 수준의 연구물로는 최근에 나온 두 편⁸⁾이 있을 뿐이다. 정작 지리학계에서는 本貫 자체

가 지닌 空間的 屬性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논의의 테마로 다룬 적이 없는 것이 아쉽다.

성씨집단과 관련한 지리학 외부학계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의 社會構造와 親族體系를 이해하기 위한 端緒로서 성씨집단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本貫이 성씨집단의 正體性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本貫의 意味를 實證的으로 밝히려고 시도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특히 本貫이 姓氏集團의 空間的 領域性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할 때 歷史地理學에서 本貫의 空間的 實在性與否와 地理的 意味의 問題를 밝혀보고 이를 통하여 姓氏集團의 起原地 및 居住地 移動의 주제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意味 있는 작업이라 본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 나라 성씨집단의 起原地와 居住地 移動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성씨집단 正體性의 일부를 이루는 本貫의 기원과 그 지리적 의미의 累層을 이해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서, 史料上에는 本貫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本貫은 언제부터 기원하였는가, 행정 구역별 本貫의 分布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本貫은 각 성씨집단이 발생한 空間的 實在인가 아니면 虛構의 개념인가, 本貫과 居住地는 서로 일치하는가, 그리고 시기별로 本貫의 意味는 동일했다고 볼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져 보았다.

주로 사용된 문헌 자료는 族譜序文과 墓誌銘 등의 私撰資料와 三國史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등이다. 이들 자료 중 족보 자료를 다루는 데는 족보의 진위 문제는 논하지 않고 기록 그 자체의 분석에 충실하였다. 이 때 族譜序文과 墓誌銘은 개인적 혹은 성씨집단적 차원에서 本貫의 기원과 의미를 조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三國史記 이하 관찬 사료는 국가수준에서의 本貫意識, 社會的 狀況과 變化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되었다.

2. 本貫의 출현 배경

1) 史料上的 기록

일반적으로 本貫이란 각 성씨집단의 父系 祖上

인 始祖의 發祥 場所를 표시하는 것이라 이해되고 있다. 가령 金氏라고 해서 모든 金氏가 血統上 同一 성씨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金氏 즉 姓氏라는 하나의 標識만으로는 姓氏集團의 父系血統을 분간할 수 없다. 이런 경우 本貫이 姓氏와 함께 並稱될 때 비로소 동일한 宗族集團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高麗史』에는 本貫이라는 용어 외에 같은 의미로서 鄉貫, 鄉籍, 本鄉 등의 단어가 비슷한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朝鮮王朝實錄에서는 이들 유사한 용어들이 대체로 本貫이라는 용어로 통일되고 있다. 本貫과 유사한 의미의 용어로는 貫鄉, 本籍, 貫籍, 鄉貫, 籍貫, 族本 등이 있다.

本貫이라는 단어는 『三國史記』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高麗史』에서 처음 기록이 보이고 『朝鮮王朝實錄』에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빈번히 나타난다. 『高麗史』에서 本貫과 관련된 용어가 처음 보이는 시기는 서기 918년(고려 태조 원년)이다. 당시 기록¹²⁾에서는 貫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A). 그 뒤 1001년(고려 목종 4년)의 기록¹³⁾에서 비로소 本貫이라는 용어가 보인다(B). 그리고 사찬 자료 중에서 本貫이라는 표현은 1152년(고려 의종 6년)에 새겨진 墓地銘¹⁴⁾에서 발견된다(C). 일반적으로 墓地銘에는 죽은 자의 身上明細와 生存時의 行蹟이 기록되는데 이중 姓名과 本貫을 언급하는 身上明細에 관한 부분이 첫머리에 기록된다. 墓地銘이라는 경관이 갖는 대중성을 상기할 때, 1152년에 제작된 이 墓地銘의 내용으로 보아 이미 고려전기부터 本貫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 같다.

A. “鄉의 貫鄉인 靑州는 토지가 비옥하고 호걸이 많아...”(鄉貫鄉靑州土地沃饒人多豪傑) (918년, 고려 태조 원년).

B. “왕이 이르되, ...여기는 鄉의 本貫이다. 鄉의 功勞를 생각해 볼 때 가이 滿州로 승격시킬만 하다.”(王曰...此鄉本貫也念鄉功勞可陞爲滿州) (1001년, 고려 목종 4년).

C. “君의 閔은 姓이고 瑛은 그 이름이요 本貫은 黃驪縣이다.”(君閔姓其名本貫黃驪縣) (1151년, 고려 의종 6년).

그 후 1273년(고려 원종 14년)에는 “예로부터 科擧에 응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本貫에 관한 항목을 姓名, 四祖의 항목과 함께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였다”는 기록¹⁵⁾이 있다. 관직 진출자의 本貫에 관한 자료를 國家가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여기서 ‘예로부터’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高麗史』 문종 2년 즉 1048년의 기록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 의하면 “鄭惟産이라는 자가 이름을 봉하여 제출하게 하는 법 즉 封彌를 시행하자고 제의하였고, 과거 시험장에서 이름을 봉하는 법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¹⁶⁾고 적고 있다. 물론 이 기록에서는 ‘이름을 봉하여 제출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을 뿐 本貫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름을 쓸 때 本貫도 함께 적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전술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고려초기 즉 1200년대 이전부터 어떤 사람의 출신성분을 표시할 때 本貫이 정부 수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 관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려 개국시부터 등장한 本貫에 관한 기록은 고려전기에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며 官職 從事者를 관리하기 위한 공식적 국가 자료로서 조사되고 기록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후 국가 자료로서의 本貫 자료는 朝鮮時期까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고려 시기는 물론 조선시기에 와서도 本貫은 科擧場에서 필수 기재항목으로 되었으며, 『高麗史』 열전 및 『朝鮮王朝實錄』의 인물 기록을 보아도 반드시 本貫을 적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시기에 와서는 단순히 科擧入試者뿐만 아니라 모든 兩班, 人吏, 百姓, 各色人의 本貫에 관한 기록을 호조와 감사와 해당 고을 등 3개 기관에 각각 비치하도록 하고 있었다.¹⁷⁾ 즉, 조선초기부터는 관직자뿐만 아니라 노비를 제외한 良人 이상 모든 국민들의 本貫이 추적, 관리되었던 것이다. 그 후에는 천민에까지도 本貫을 반드시 戶牌에 기록하여 관리하였다.¹⁸⁾ 따라서 本貫을 임의로 바꾸거나 속이는 것은 國王을 속이는 것과 같은 중죄로 다스려졌다.¹⁹⁾ 반대로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자의 경우에는 本貫의 행정적 지위를 격상시켜 줌으로써 보상을 하였다.¹⁷⁾

2) 本貫의 출현 배경에 관한 既存 見解의 검토

본관의 출현 배경에 관한 기존 연구의 시각은 다양한 편이다. 기존 연구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려시기에 사회적으로 門閥이 유효하게 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신들의 가문을 다른 가문과 구별하려는 의도에서 본관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주장,¹⁸⁾ 둘째 고려시기에 지역 주민의 신분관계, 지배복속 관계를 국가적 규모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군현제도와 병행되어 등장했다는 주장,¹⁹⁾ 셋째, 고려시기의 본관은 귀족들의 씨족관념이나 문벌의식의 산물이고 조선시기의 경우에는 평민들이 避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호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現居住地를 本貫化하였다는 주장,²⁰⁾ 넷째, 나말여초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구유동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백성들을 일정한 지역에 束縛시키고 그들의 호구상태를 파악하여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에 의해 실시되었다는 주장²¹⁾ 등이 있다.

이상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연구 유형은 본관이 성씨집단들에 의해 自發적으로 출현하

었다고 보는 경우이고, 둘째와 셋째는 위계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본관이 국가에 의해 一方的으로 분정되었다고 보는 시각이라 이해된다. 넷째의 경우는 국가와 지역민 간에 이루어진 통치 관계와 양자 간의 政治·社會的 關係 속에서 본관의 출현 배경에 접근한 것이다. 넷째 주장은 비교적 최근의 연구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는 경향이 있다.

이 네 가지 유형의 연구들이 갖는 공통점은 本貫을 어떤 特定 時期의 產物로 귀결시키거나 국가, 귀족, 일반 백성 등 特定 主體나 社會階層만을 염두에 두고 본관의 출현 배경을 논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의 논의는 구체적인 時期와 空間을 어느 정도 한정해서 적용할 때 비로소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행 연구들의 결과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성을 갖게 된 이유는 대략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 본다. 하나는 본관 자체를 연구의 主目的으로하기보다는 중세 사회 내지 사회사 연구를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본관의 속성을 거의 高麗時期에 한정해서만 다루고 있고 보다 장기적인 시간틀 속에서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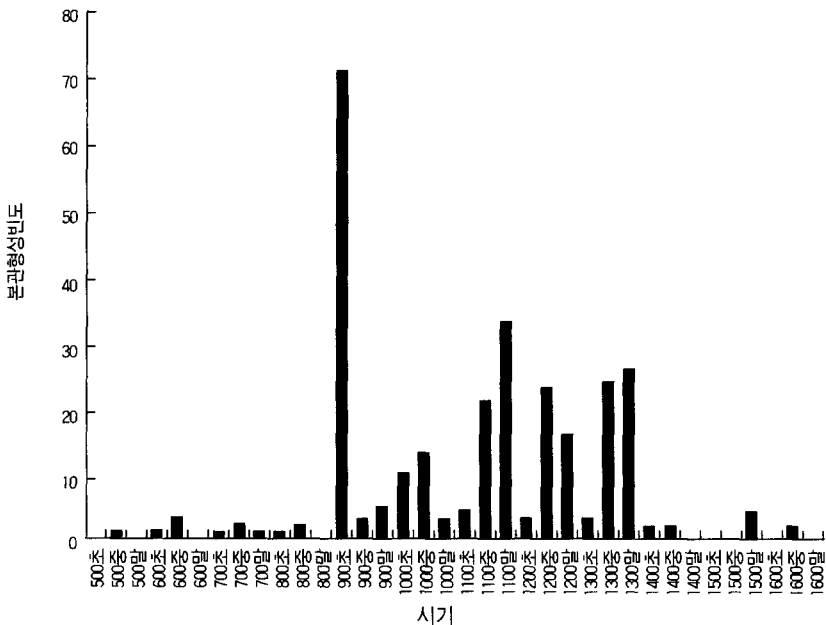


그림 1. 시기별 본관의 출현 빈도²²⁾

결국 지금까지의 본관 관련 연구들은 本貫의 출현 배경과 그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다른 주제의 연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어떤 단일한 모습을 상징하고 本貫에 접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본관의 출현 빈도를 시기별로 조사해보면, 현존하는 우리 나라의 각 본관들은 어떤 한 시기의 산물이 아니라 高麗 이전부터 朝鮮時期에 이르기까지 수백년에 걸쳐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그림 1).

대부분의 본관이 생겨난 시기는 대체로 고려시기를 전후로 하며 시간상으로는 1000년 이상에 걸친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발생한 고려시기의 경우에도 시기별로 빈도의 차이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본관의 출현 배경이 그만큼 다양했을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시기별 本貫意識도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本貫의 累層的 意味와 그 起原의 歷史 地理的 探索

1) 宗族 世居地로서의 본관: 居住 場所

宗族의 世居 혹은 居住地로서의 本貫은 본관의 출현 배경상 가장 원초적이며 실제에 가까운 의미층이다. 이 의미층은 '本貫=世居地' 즉 조상 대대로 거주해온 장소를 의미한다. 본관의 출현 배경은 1차적으로 혈연적, 지연적 출신지를 나타내고자 함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서로 다른 血緣的, 地緣的 正體性을 지닌 성씨집단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접촉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 고려초기의 경우와 같이 이전까지 각 지방의 호족으로 존재했던 주요 성씨집단들이 자신의 근거지를 넘어 王都인 개경에 모이게 된 경우가 그것이다.²⁹⁾ 어느 한정된 지역에 혈연적, 지연적 정체성이 다른 각 성씨집단들이 集居하게 됨으로써 서로를 구별하고 차별할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각 성씨집단은 개경으로 이거하기 전의 근거지, 즉 세거지를 자신들의 本貫으로 표시하게 되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국가

는 이러한 과정에서 각 성씨들의 본관을 객관적으로 認准하는 절차를 취하게 된다. 가령, 고려왕조는 개국 후 후삼국통일에 공헌한 개국공신들에게 食邑 또는 封土를 내리고 爵位를 수여하게 된다. 이 때 下賜된 식읍이나 봉토는 각 성씨집단들의 既存 世居地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각 성씨집단들은 식읍과 작위 수여를 통해 기존 세거지에서의 영영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어 자신들의 정체성 확보를 기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안동지방에서 세거해 오던 안동권씨의 경우 시조가 개국공신이 되면서 이전의 金氏 대신 權氏 姓을 하사받고 안동일대를 封土로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후손들은 안동을 본관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本貫이란 세거지를 표시하고자 했던 각 성씨집단들의 自發的 必要性과 국가의 客觀的 認准 節次가 서로 조합됨으로써 공식적인 사회적, 정치적 자료로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世居地가 本貫 設定의 根據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어떤 인물을 파악할 때 그의 居住地를 통해서 正體性을 확인하고자 했던 이와 같은 관행은 당시에는 지배적인 것이었으며 그 증거는 각종 墓地銘과 碑文에도 나타나 있다. 고려전기의 墓誌銘²⁴⁾을 해독하다 보면 죽은자의 신상명세를 기록함에 있어 '~人'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 가령 '楊州人也',²⁵⁾ '其先邵城人也',²⁶⁾ '漢南道廣州牧管內水州人也',²⁷⁾ '其先自狼川郡遷于水州遂爲水州人也'²⁸⁾ 등이 그 예이다. 여기에 제시한 사례 중 마지막의 그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그 先祖가 狼川郡으로부터 水州로 居住地를 옮겼기에 드디어 水州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바로 '水州人 = 水州에 居住하는 사람'이라는 등식을 성립하게 해준다. 따라서 이 앞의 사례에서 제시된 '楊州 사람이다'라든가 '그 先祖가 邵城 사람이다', '廣州牧 관내에 소속된 水州 사람이다' 등과 같은 내용에서도 바로 '居住地가 그곳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적어도 고려전기의 경우에는 소위 본관이라는 것이 거주지를 근거로 한 것이고 따라서 거주지와 일치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비해 조선시기에 와서도 각종 문서에서

‘~人’이라 했을 때 그것은 물론 고려시기와 마찬가지로 本貫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이 때의 본관은 반드시 실제 거주지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시기를 더욱 거슬러 올라서 고려왕조가 도래하기 이전의 시기에는 상황이 어떠하였을까? 통일신라 이전의 기록을 담고 있는 비문으로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북한산, 경남 창녕, 함흥 황초령, 이원 마운령 등지에서 발견된 진흥왕 巡狩碑, 진평왕 때 세워진 경주 南山新城碑, 그리고 진지왕 때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 戊戌塢作碑 등이 있다. 신석호에 의하면, 이들 비문에서는 姓氏는 발견되지 않고 ‘출신지역-이름-직위’ 순으로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다²⁹⁾고 분석하였다. 가령, 창녕 비문의 경우 ‘喙竹夫智 沙尺干’이나 ‘沙喙 心麥夫智 及尺干’, 북한산 비문의 ‘沙喙 屈丁次 奈末’, 남한신성비의 ‘砂喙 音乃古 大舍’, 무술오작비의 ‘冬里村 沙木乙 一伐’, ‘稱得所里村 也得失利 一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제일 앞에 출신지역으로 추정되는 ‘部 명칭이나 村 명칭’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姓이 없이 ‘사람 이름’, ‘관직명’을 차례로 적고 있는 것이다.

삼국통일 직후 세워진 이들 비문도 각 공신들을 기록함에 있어 실제 거주지역을 통해 인물을 파악한 증거로 보인다. 이것은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초기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통일신라의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 출신 지역이 기록된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국가와 성씨집단의 의도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인물의 실제 거주지를 통해서 그 인물의 출신 성분을 파악하고자 했던 관행은 이미 신라 시대의 각종 비문들에서도 보인다. 특기할 만한 것은 고려시기와는 달리 신라시기의 비문에서는 어떤 인물을 기록함에 있어 姓氏가 없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地名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즉, 人物表式에 있어서 姓氏보다 本貫이 시기상 먼저 출현했다는 추정도 가능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통일신라시기 이전부터 인물 표시를 위한 방법이었던 出身地名 표기의 관행이 고려시기에 와서 本貫, 鄉貫, 貫鄉 등의 용어로 개념화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적어도 고려전기까지만 하여도 本貫이란 실제 거주지를 지칭하는

것이며, 이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居住地名을 통한 인물 표시의 관행이 제도적으로 정립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의 기본 자료에 기초한 분석의 결과, ‘本貫=世居地’에 해당하는 성씨집단은 총 307개로서 전체 321개의 9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세거 배경별로 세분해 보면, 작위 하사를 이유로 세거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서 218개, 시조로부터의 단순 세거가 70개, 은거 혹은 표착으로 인한 세거가 19개였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시조로부터 특정한 중시조까지의 繼代가 상실된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전체 성씨의 95.9%가 모두 세거지로서의 본관을 갖고 있다고 확인하기는 곤란하다.

2) 始祖 發祥地로서의 본관: 起原 場所

起原으로서의 本貫이란 실제의 居住地와 本貫이 분리되기 시작하던 상황에서 나타난 새로운 本貫意識이며 본관 개념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意味層이다. 本貫을 실제 거주지로서가 아니라 始祖의 發祥地 내지 먼 조상의 起原地, 또는 자기 성씨의 出自地 정도로 인식하는 의미층을 뜻한다. 이 의미층은 ‘本貫=起原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술한 居住地 場所로서의 본관의 의미층과는 달리 세거지라는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起原地라는 口傳 내지 認識만 있는 경우를 뜻한다.

고려초기에는 그 이전까지 각 지방에서 세거하고 있던 공신들이 중앙 관직에 종사하게 되면서 혹은 지방의 유력 성씨집단들이 과거를 통해 중앙 관직에 진출하게 되면서 기존의 世居地에 거주하는 집단과 수도 開京에 거주하는 집단이 分化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在地吏族, 후자를 在京士族이라 칭한다. 특히 재경사족에게 있어서는 세대가 거듭할수록 본관과 실제 거주지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인식되어 버린다. 이와 같은 本貫과 居住地의 분리 현상은 在京士族과 在地吏族으로 분화된 성씨집단뿐만 아니라 여타의 성씨집단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한 원인은 고려시기를 거치면서 있었던 戰亂과 饑饉으로 인한 流民의 발생 및 왕조 교체 과정에서의 대규모 숙청, 유배, 은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조선초기까지만 하여도 국가는 관직에 종사하는 주요 성씨집단들의 파악 및 流民의 통제 방법으로서 本貫 자료를 고수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그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D. “관직에 입사하는 것을 7科로 만들어 ... 그 出身을 기록하는 것은 고려에서 행했던 例와 같이 하고 年甲, 本貫, 三代를 명백히 써서...”(태조 1년 8월 2일).⁴⁶

E. “의정부에서各司로 하여금 각각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되, ... 그 이름 밑에 年齡, 本貫, 出身, ..., 父·外祖·妻父의 職名, 父母의 時居鄉을 써서 바치게 하였다.”(태종 3년 6월 13일).⁴⁷

F. “예조에서 科擧의 법을 올렸다. ... 각 도에서 鄉試에 나아가는 자는 그 소거관의 수령이 年甲, 本貫, 通한 經書를 갖추되, ... 他道로 赴試함을 일체금지하게 하소서.”(태종 17년 5월 14일).⁴⁸

이상의 사례는 관직에 진출하는 자들의 本貫을 국가가 주관하여 파악하고 本貫地 이외의 他道에서 과거 시험을 보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는 등 本貫이 조선왕조 직후까지 관직자의 根據地와 正體를 확인하는데 사용된 주요 국가 자료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아래에 제시한 자료들은 조선초기를 지나면서 本貫과 관련하여 다소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G. “경기·강원도의 程驛 察訪이 계하기를, ... 각 관의 驛吏들을 소재지의 수령들로 하여금 그 所從來와 자손의 이름, 나이를 평민의 호구 조사하는 예에 따라 갖추어 기록하고 本驛으로 本貫을 삼도록 하여 각기 호구장부를 만들어 주고 ... 만약 도피하는 자가 있으면 그 호구 장부를 상고하여 곧 원래 본관지로 돌려보내고, 호구 장부가 없는 자는 영영 公賤에 속하게 하고...”(세종 6년 7월 20일).⁴⁹

H.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流移한 사람중에서 婚姻으로 밀미함아 다른 도에 옮겨 사는 자라면 그만이겠지만 고향을 싫어하여 다른 도에 유이한 자는 刷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처음 유이할 때에 반드시 田宅·奴婢를 죄다 팔았을 것이므로 본관지에 돌아가더라도 살아가갈 계책이 없을 것이니, 고소하는 자가 있거든 모두 찾아서 돌려주게 하라.”(성종 15년 6월 7일).⁵⁰

I. “병조에서 아뢰기를, 유이한 사람 중에서 조부모나 부모 때부터 옮겨 살던 자는 다 본관지로 돌아가게 하고...”(성종 15년 6월 7일).⁵¹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선 驛에 종사하는 驛吏의 경우 그 근무처를 本貫으로 삼게 함으로써 본관과 거주지를 일치시키려는 국가의 의도가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근무처를 떠나 도피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전의 本貫地로 돌려보내는 刑罰을 가하기도 한다(G 참조). H와 I의 사례는 本貫을 이탈한 流移民의 경우 모두 색출하여 本貫으로 돌려보내고, 심지어 부모나 조부모 때부터 流移한 자들까지도 本貫으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들은 조선전기에 본관과 거주지가 일치되지 않는 사건들이 발생해서 그들을 통제시키고자 했던 국가의 시도들이라 생각된다. 麗末鮮初 동안 본관을 떠나 있던 流移民들을 조선왕조가 정비하고자 했던 것 같다. 아래의 사례들은 그러한 국가의 노력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

J. “諫院이 아뢰기를, 擧子의 試卷에 本貫과 居住를 함께 쓰는 것은 이미 식례로 정해져 있으므로, 전에도 거주를 쓰지 않고 임격한 자는 삭제되었습니다.”(선조 29년 11월 2일).⁵²

K. “군사가 서로 잇따라 도망하고 있습니다. ... 거주와 본관을 분명하게 기록해두면 반드시 뒤쫓아 찾을 길이 있을 것인데...”(선조 34년 6월 2일).⁵³

L. “본관과 거주지를 기록한 錄名單子 및 卓榜에 ...” (선조 38년 12월 19일).⁵⁴

위의 사례는 조선중기부터 보이는 기록들로서 本貫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居住地의 문제를 별도로 논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전기에는 本貫을 기록함에 있어 居住地를 並記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중기에 접어들면서 本貫과 居住地를 이렇게 대등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선전기부터 국가가 노력해 온 본관과 거주지의 일치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즉 본관을 통해서 백성을 통제하는 것이 더 이상 실효가 없어졌고, 따라서 본관과 함께 실제 거주지를 별도로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물론 J의 예시에서 보이듯이 居住에 관한 기록의 관리는 그 이전, 즉 조선전기부터 이루어져 왔던 것 같다. 그러나 조선중기에 이르게 되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거주지를 표기하지 않은 자는 합격이 취소될 정도로 現實적으로 거주지 파악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 즉 본관과 거주지 별개의 것이 되어버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 본관과 거주지의 분리 단계에 있어서 조선전기를 일종의 過渡期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전기까지만 해도 국가는 백성의 본관과 거주지를 일치시키려 시도했으나 그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준다. 조선전기의 이같은 상황은 우리 나라에서 족보 편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때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조선전기부터 시작된 각 성씨집단의 族譜의 編纂慣行은 이미 자신들의 거주지로부터 떨어져 버린 血緣的 起原, 空間的 起原을 파악하고자 했던 행위로 이해할 수도 있다. 血緣的 系譜만을 그려놓은 族圖 및 단순히 구전되어온 記憶에만 의존하여 자신들의 혈연적, 지연적 계보의 기원을 더듬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로 本貫과 居住地의 분리가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추측된다. 많은 족보들에서 始祖와 本貫은 분명히 제시하면서도 시조 이하 중시조까지의 繼代와 그 居住地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조선전기의 本貫地-居住地 分化 現象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각 성씨집단의 起原 空間과 起原 人物을 탐색함으로써 더이상 記憶이 아닌 文獻으로 기록, 보존하려는 시도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조선전기부터는 本貫을 始祖의 起原 場所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것이 바로 本貫 概念이 지닌 起原 場所로서의 의미층으로 퇴적되었다고 본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성씨로는 恩津宋氏와 德山黃氏를 들 수 있다. 이들의 본관은 각각 은진(충남 논산군 관할)과 덕산(충남 예산군 관할)이지만 현재 본관지에는 先代의 묘소나 유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세거지도 전혀 다른 곳이다. 은진송씨의 세거지는 충청남도 회덕, 덕산황씨의 세거지는 경상북도 선산이다. 또한 시조로부터 중시조에 이르는 세대가 상실되어 있다. 이들에게 있

어서 본관은 단순히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는 起原 場所일 뿐이다.

3) 權力에의 意志로서의 본관³⁹⁾: 象徵 場所

고려시기 이래로 지방사회에서 증상으로 진출한 관료들은 本貫이 같은 경우 同鄉意識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었다.⁴⁰⁾ 조선시기로 들어와서 17세기 이후의 양반사회에서는 稀姓과 僻貫을 멸시하는 관념이 만연되어 갔으며, 그 이전부터 姓보다는 本貫에 따라 姓望의 優劣과 家格의 差等이 정해진다는 의식이 일반적이었다.⁴¹⁾ 18세기부터는 족보의 僞造를 통해서 軍役을 면하고자 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였다.⁴²⁾ 屬縣 이상의 군현을 본관으로 하면서 이미 조선초기에 士族으로 성장했거나 명조, 현조를 확보한 가문은 本貫을 바꾸지 않은 반면 그렇지 못한 군현이나 종래 향, 소, 부곡 및 村名을 본관으로 했던 성관들은 당초의 본관을 버리고 소속 主邑을 새 본관으로 정하였다.⁴³⁾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조선중기 이후 本貫의 詐稱과 改善을 불러일으킨 배경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부가된 本貫의 意味層이 바로 權力에의 意志를 보여주는 象徵 場所로서의 本貫이다. 이 의미층은 '본관=象徵 혹은 虛構'를 의미한다. 즉 이는 실제 居住 場所도 아니고 시조의 起原 場所도 아닌 이른바 權力에의 意志와 門閥의 象徵으로 작용하는 본관의 또다른 측면을 지칭한다. 시기상으로는 대체로 壬辰倭亂과 丙子胡亂 이후에 우세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兩亂 이전, 즉 조선전기의 족보 자료는 私文書이면서 동시에 公文書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신빙성이 높았을 것으로 본다. 족보가 軍役을 면제받을 수 있는 1차 자료였음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족보의 위조를 통해서 軍役을 면제받는 사건이 생길 수 있는 素地가 조선초기부터 있었고, 이전의 족보 자료가 상당수 소실된 兩亂 이후의 시기는 族譜와 本貫이 쉽게 위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본다.⁴⁴⁾ 특히 조선왕조실록에서 영조 40년 및 정조 11년의 기록에는

³⁹⁾ 驛官 김경희라는 자가 사사로이 활자를 주조한 다

음 다른 사람들의 譜牒을 많이 모아 놓고 시골에서 軍丁을 면하려는 우리들을 꼬여다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영조 40년 10월 19일).

“유력한 顯族의 族譜에 이름을 기록하여 軍役의 면제를 도모하는 사례가 전국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정조 11년 4월 27일).

는 내용이 있는데, 이로 보아 18세기에는 族譜나 本貫을 詐稱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족보의 위조나 사칭 현상보다는 本貫의 改貫에 관한 것이다. 이에 다음의 기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M. “강서, 순천, 박전, 영변, 덕천, 운산, 희전, 초산 등 읍에서 李氏 姓을 가진 자가 本貫을 變換하여 ...”(순조 7년 7월 25일).

N. “...보고된 자가 166인데 그들의 호적을 고열하여 보았더니 그들의 수대 이상은 모두 다른 本貫인데 全州라고 改書하고 있으며 ...”(순조 7년 7월 25일).

O. “(위조된) 단자는 불태우고 호적을 정리하여 모두 군역에 중당하였으며 ... 자칭 宗姓(全州李氏)이라 하고 내력이 분명하지 않은 자는 오래된 호적을 모두 소급하여 참고하여 본관을 원래의 것으로 돌려놓고 ...”(순조 7년 7월 25일).

M의 사례는 자신들의 소속 성씨집단을 위조함에 있어서 姓을 바꾸기보다는 本貫을 변환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姓은 父系血統과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록 사회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하여도 당시에 만연된 유교적 예법에 비추어 볼 때 改姓 행위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에 비해서 本貫을 변환하는 일은 도덕적인 면에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으며 변명도 가능한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대략 조선중기부터는 姓이 동일한 경우 원래 과거에는 같은 혈연집단이었을 것이라는 의식이 생기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同姓異本의 성씨집단들이 하나의 本貫으로 통합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⁴⁵⁾ 그러나 국가에서는 本貫의 변환 행위에 대해서 과거의 호적을 참고하여 엄중하게 조사, 감시하였음이 O의 예에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本貫을 改貫하는

행위는 암암리에 계속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결과는 오늘날의 地域別 本貫의 頻度 分布를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그림 2).

그림 2는 현재의 市·郡 행정 구역을 단위로 하여 각 지역별로 本貫의 數를 분포도로 표현한 것이다. 가령, 지도상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경기도의 개경, 충청도의 충주와 청주, 전라도의 전주와 나주, 경상도의 안동, 성주, 경주 등 9개 지역은 각각 20개 이상의 성씨집단들이 본관으로 삼고 있는 지역들을 의미한다. 이들 지역은 高麗時期的 地方中心地와 일치하는데 本貫의 분포가 이들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분포 밀도가 이들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지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本貫의 분포 밀도가 고려시기의 주요 지방 중심지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들 고려시기의 지방 중심지란 고려시기 이래로 주요 명망 있는 호족들의 本貫이었다. 이 점을 상기할 때, 주요 호족들의 본관을 사칭하게 되면 사회·정치적 지위를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대에는 姓이 다르더라도 本貫이 동일한 경우 同鄉意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⁴⁶⁾ 소위 본관의 改貫 혹은 詐稱이 무리 없이 발생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재의 본관수 분포는 고려시기 유력 호족들의 출신지에 집중하는 왜곡된 결과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 현재의 본관 분포를 진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림 2의 분포를 조선중기이후에 나타난 本貫의 詐稱 및 改貫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가 또 하나 있다. 조선시기의 유력한 성씨집단들은 그 근원을 고려시기의 재경사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각 지방의 중심지에서 상경한 豪族의 후예들로서 본관은 대체로 고려시기의 주요 지방 중심지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조선중기 이후 나타난 각 성씨집단들의 改貫 行爲에서 당시의 유력 성씨집단의 본관지로 改貫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력 집단에 한층 가까이 갈 수 있었던 방법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⁴⁸⁾ 필자는 이같은 결과가 그림 2와 같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하며, 이것을 社會的 地位와 權力에 대한 指向性을 象徵하는 本貫의 세 번째 意味層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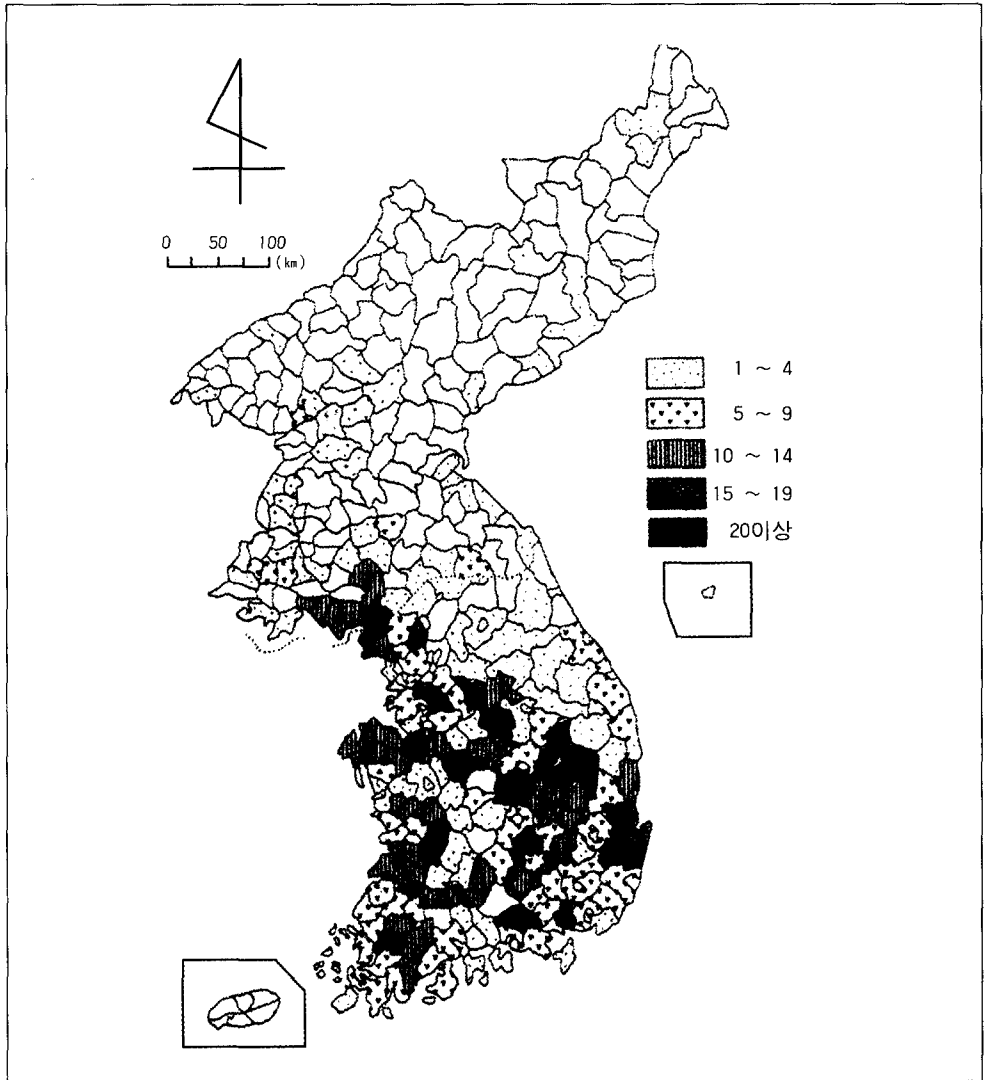


그림 2. 지역별 본관 수의 분포⁴⁶⁾

로 이해하고자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로는 함경남도 영흥군이 세거지이면서도 조선초 본관을 漢陽으로 변경한 漢陽趙氏, 세거지가 전라도 압해도이면서도 조선 중기 羅州로 본관을 바꾼 羅州丁氏, 그리고 조선시기에 중국의 특정 지방을 본관으로 설정하고 있는 新安朱氏, 曲阜孔氏를 들 수 있다. 이들이 본관을 바꾼 표면상의 이유는 성씨집단체개국공신의 출신지, 행정구역 변경, 동일한 혈통기원 등에 근거한다. 그러나 변경후의 본관의 行

政等級이 이전보다 높다는 점, 중국을 본관으로 하는 경우 孔子와 같은 有力人物의 성씨와 동일하다는 점에서만 보아도 이들의 本貫改貫에서 權力 지향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특정 인물의 후손으로 사칭해서 유력한 본관의 성씨집단 속에 삼입하는 사례도 있다. 가령 淸州韓氏 五校族譜(乙丑譜) 서문을 보면 "11世孫 서제공은 이전의 네차례 족보에 모두 후손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갑자기 10여세를 아무 근거도 없이 채워서 血孫이 있는 것과 같이 꾸며놓았으니

통탄할 일이다. 이것이 누구의 장난으로 된 것인가⁴⁹⁾라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4. 要約 및 結論

本貫은 적어도 1200년대 이전 즉 고려초기부터 개념화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특정 인물의 출신 성분을 표시하는 수단으로서 관직 진출자들을 중심으로 本貫이 파악되고 국가에 의해 그 기록이 관리되었다. 그 후 조선시기에는 국가수준에서 本貫의 파악 대상이 전국민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관과 그 곳 출신의 인물 사이에는 매우 긴밀한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소위 邑號陞降의 경우와 같이 人物에 의해 本貫의 승강이 이루어지고 本貫에 따라 人物이 파악, 관리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 것이다.

필자는 고려전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우리나라의 本貫을 이해함에 있어 고려시기와 조선시기를 거치면서 몇 개의 意味層이 쌓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글은 현재의 本貫 概念에 남겨진 그러한 의미층들을 추출해 보고 그 起原을 歷史地理的 觀點에서 설명하려 하였다. 즉 本貫이 지니고 있는 現在的 意味를 밝혀보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은 본관의 정의를 보다 명료하고 간단하게 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의 本貫 概念이 함유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그 근원을 復原하고자 함에 있다.

그 결과 本貫의 의미는 간명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씨집단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 의미가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남아있는 本貫의 意味를 實際로서의 본관, 起原으로서의 본관, 權力에의 意志로서의 본관으로 나누어 그 의미 누층을 추출·고찰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의미층은 '本貫=居住 場所'라는 의미층이다. 이것은 본관이 출현하게 된 근본적 배경과 통하는 것으로서 世居地 내지 出身地, 혹은 故鄉의 의미로서의 본관을 뜻하는 것이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후 수도 개경에는 고려 개국에

공헌한 전국의 호족들이 集居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각 성씨집단별로 자신들의 血緣的, 地緣的 出身地를 표시하기 시작한 것이 世居地로서의 本貫 개념이다. 이같은 관행은 이미 통일신라시기부터 시행되었던 것이었고, 고려시기에 이르러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관료층의 本貫 기록을 국가가 파악, 관리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의미층은 '本貫=起原 場所'라는 의미층이다. 이 層位는 고려시기를 거쳐 조선시기에 이르면서 중앙 정계의 진출, 전란이나 흉년, 왕조 교체의 혼란 등으로 인해 본관지로부터의 이탈이 일어나고 그것이 시간적으로 누적됨으로써 결국 本貫과 居住地가 분리된 상황에서의 본관의 의미를 지칭한다. 이 때 본관지로부터 이탈하여 타지방에 오랫동안 거주한 자들에게 있어 本貫의 概念은 더 이상 世居地가 아닌 단지 자신들의 始祖의 發祥地, 즉 起原 場所로 인식되어진다. 이 의미층은 고려말기부터 조선초기에 이르는 동안 전형적으로 부가되었다.

세 번째 의미층은 '本貫=象徵 場所'라는 층위이다. 이 때의 本貫은 실제 거주지나 기원지 같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權力에의 意志를 보여주는 일종의 虛構的이고 象徵的인 意味를 지닌다. 이 층위는 조선전기를 과도기로 하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사회적 혼란기를 겪으면서 집중적으로 쌓여졌다. 戰亂으로 인한 기존 자료의 소실 및 분실은 이 세 번째 층위가 쌓일 수 있는 절호의 퇴적 환경을 제공하였을 것이다. 同姓異本의 각 성씨집단들이 유력한 한 두 본관으로 改貫하거나 중국의 本貫을 취한 경우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 他本貫을 詐稱한 사례도 있고 나름대로의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改貫한 예도 있지만, 양자 모두 勸力을 지향한 것이라는 점은 공통된다고 보았다.

오늘날 우리 나라 각 성씨집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本貫의 意味는 이상의 세 가지 地理的 意味層 중 하나 이상의 累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술한 바와 같이 각 층위는 生成 時期를 서로 달리한다. 결국, 우리 나라의 본관은 수세기 이상에 걸쳐 다양한 출현배경과 의미를 지니며 형성된 것으로서 다양한 퇴적 환경 하에서 형성된 일종의 意味 累層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 글에

서는 주로 각 층위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본관의 누층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본관들은 앞에서 제시한 居住場所, 起原場所, 象徵場所 등의 地理的場所概念을 통해 이해가 가능하고, 이 세 가지의 개념들을 가지고 분류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본관의 의미를 규정하려고 할 때 1차적으로 그것은 어느 시기의 본관을 지칭하는가, 어느 성씨집단의 본관을 말하는 것인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본관을 말하는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本貫의 의미는 고려와 조선시기 각 郡縣마다 존재했던 土姓, 續姓, 來姓, 亡姓 등의 姓氏集團類型과도 관련지워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本研究가 갖는 限界와도 관련되며, 본 연구를 기반으로 삼아 수행해야 할 추후의 과제가 된다. 다시말해서, 本貫에 관한 이해는 곧 성씨집단들의 居住地 起原과 空間的 移住過程이라는 보다 넓고 구체적인 주제의 틀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 속에서 본관의 의미가 이해되어야 보다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本貫이 단순한 物理的 空間을 넘어선 다음 아닌 컨텍스트 위에서 있는 社會的 構成體이기 때문이다.

註

- 1) 여기서 '한국의' 성씨집단이라 하여 성씨집단을 한국에 한정한 의미는 성씨제도가 비록 중국에서 기원하였으나 성씨제도의 내용상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며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재산의 균분상속이 이루어져 왔고 이와 더불어 혈통에서도 宗家나 本貫 개념이 희박하다(이광규, 1992, 87-9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기 이래로 장차우대 상속이 지배적 관행이었고 이에 따라 성씨집단내에서 宗家和 本貫 개념이 매우 강한 것이 특색이다.
- 2) 姓氏란 원래 두 가지 요소 즉 '姓'과 '氏'를 합

친 용어이다. 이 단어가 기원한 중국에서는 姓이 혈통을 뜻하는 것이고 氏는 개인의 주거지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系統的 혈통을 성으로 표시하고 個人的 특성을 씨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姓과 氏를 구분하지 않고 姓을 일반적으로 姓氏라는 단어와 동일시하여 통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우리나라의 常例에 준하여 姓氏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姓과 동일한 의미로 기술하고 있다. 본 고의 논리전개상 성과 씨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 3) 淸州韓氏 族譜에 의하면 鼻祖는 古朝鮮의 箕子, 始祖는 고려개국시 개국공신인 韓蘭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에 谷山韓氏의 경우는 고려 회종 때 중국 南宋에서 東來한 韓銳를 始祖를 하고 있다. 谷山韓氏를 제외한 모든 韓氏는 淸州韓氏인 것으로 합의되어 있다.
- 4) 현대 유럽의 사회지리학, 특히 전통적으로 문화지리학과 긴밀한 관련 속에서 발전해온 프랑스와 독일의 사회지리학에서는 지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집단에 관심을 가져왔다. 블라쉬(Vidal de la Blache)의 'genres de vie'가 그 시발적 개념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계승한 보벡(Bobek, H.)의 'Lebensformgruppe'(生活形態集團), 오브라젠스키(Obrazenskiy)의 '社會領域的集團' 등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들을 포괄적으로 '地理學的 社會集團'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1차집단·2차집단'식의 구분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학적 사회집단이 아닌 지리적으로 규정될 수 있고 지리적 행동공간을 갖는 사회집단을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의 성씨집단도 일종의 지리적 사회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령 本貫이라든가 소위 同姓村落, 거주지 이동 같은 요소들에서 이들이 지리적으로 행위하고 공간적 領域性을 가지며 場所를 생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 5)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85년 기준 1만명 이상의 성씨집단은 본관수로는 321개, 성씨수로는 98개이고 이 중 시조 기원지를 中國으로 설정하고 있는 성씨는 96개 본관, 65개 성씨이다. 본관수로는 약 30%, 성씨수로는 약 68%에 달한다. 즉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성씨집단의 약 30% 가량이 자신들의 血緣的 始祖를 중국인이라고 족보에

- 기록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종일, 1993, “중국에서 동래 귀화한 사람의 성씨와 그 자손의 신분 지위,” 素軒 남도영 박사고회기념 역사학논총, 민족문화사, 321-337; 박옥걸, 1997, “고려초기 귀화 漢人에 대하여,” 한국사연구논선, 14, 도서출판 아름, 129-156.
- 6) 역사문화학회 편, 2000, 지방사와 지방문화, 2집, 142.
- 7) 地理學界의 경우, 本貫에 관한 문제는 논의의 쟁점으로 언급되기보다는 姓氏集團의 宗族村落 研究에 焦點을 두면서 附隨的으로 다루어져 왔다 (e.g. 최기엽, 1986; 이문중, 1988). 社會學界에서는 근대 이후에 관심을 두면서 성씨집단의 기능과 해체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고, 人類學界에서는 성씨집단의 의식구조와 통혼관계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의 姓氏와 本貫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歷史學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다고 보여진다. 특히 宋俊浩와 李樹健은 이 분야에서 先導的인 학자로서 社會史의 관점에서 성씨집단을 연구하고 있다. 이들 연구의 특징은 구체적이고 지리적인 소재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관련 논저로서 다음 저서들이 있음. 『한국중세사회사연구』(이수건, 1984, 일조각), 『조선사회사연구-조선사회의 구조와 성격 및 그 변천에 관한 연구』(송준호, 1987, 일조각)].
- 8) 『고려시대 향촌사회 연구』(박은경, 1996, 일조각)와 『고려시대 국가와 지방사회』(채응석, 2000, 서울대학교 출판부)를 말한다. 전자는 고려시대 鄉村社會 構造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本貫 문제를 살핀 것이고, 후자는 고려시대 地方 秩序를 파악하는데 본관에 중점을 두어서 고찰한 것이다. ‘국가와 지방 통제정책’으로서 본관제는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고려시기에 한정되어 있고, 연구 목적 또한 本貫 그 자체라기보다는 고려시기의 지방 내지 향촌사회이므로 연구 결과를 적용함에는 시기적, 지역적으로 제약을 갖고 있다.
- 9) 『高麗史』 卷第 1, 918년(태조 원년).
- 10) 『高麗史』 卷第 93, 1001년(목종 4년).
- 11) 閔瑛 墓誌銘, 1151년(고려 의종 6년).
- 12) “옛법에 의하면 ... 科擧에 응시하는 諸生들은 답안지의 첫머리에 姓名, 本貫 및 四祖를 기록하여...”(舊制...其赴試諸生卷首寫姓名本貫及四祖...), 『高麗史』 卷第 74, 1273년(고려 원종 14년).
- 13) “... (鄭) 惟産請行封彌之法貢 封彌始此...” 『高麗史』 卷第 73, 1048년(문종 2년).
- 14) “각도의 각 고을들로 하여금 금년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兩班, 人吏, 百姓, 各色人의 世系를 자세히 추고하여 分揀, 成籍하여, 한 벌은 戶曹에 바치고, 한 벌은 監司의 營庫에 비치하고, 한 벌은 그 고을에 비치하며, 京中 恒성부에서는 명년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그 本貫을 고찰하여 ... 上項의 예대로 ... 成籍하소서. ... 임금이 모두 그 대로 따랐다.” (國譯 朝鮮王朝實錄 CD, 태종 027 14/04/02, 原典 20집 10면).
- 15)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호패의 조건은 이러합니다. 堂上官은 官과 職을 쓰고 ... 3품 이하의 경우는 姓名과 本貫을 쓰고 ... 양인 및 친민은 나이, 본관, 형색을 모두 호패의 뒷면에 기록하고, 년, 월, 일을 써서 후일의 고증에 憑據하게 하소서.” (國譯 朝鮮王朝實錄 CD, 세조 013 04/07/05, 原典 7집 283면).
- 16) 다음을 참고. “너는 虔州 사람이면서 本貫을 개봉으로 하는 호적을 만든다면 임금 섬김을 구하려 하면서 먼저 임금을 속이는 것이니...” (國譯 朝鮮王朝實錄 CD, 세종 103 26/02/12, 原典 4집 542면).
- 17) 이것은 인물과 본관이 運命共同體로서 간주되었다는 것과 주민이 본관을 단위로 한 鄉村共同體로 존재했음을 암시해 준다. 이를 통해 어떤 인물과 그의 출신 지역, 즉 사람과 장소를 동일시하는 當代의 本貫意識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본관의식은 本貫 지역에서 배출한 유명 인물이 신격화되기도 하고 그와 관련된 신화의 출현 배경으로까지 작용했다고 본다.
- 18) 今村革丙, 1934, 朝鮮의 姓名氏族에 關する 研究 調査, 조선총독부; 김두현, 1985, “성, 씨족의 형성 발전,”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19) 旗田巍, 1972, “高麗王朝成立期の府と豪族,” 韓國中世社會史의 研究, 박은경, 1996, 고려시대 향촌사회 연구, 일조각, 서울.

- 20) 이기백, 1974, “고려귀족사회의 형성.” 한국사, 4.
- 21) 김수태, 1981, “고려 本貫 제도의 성립.” 진단학보, 52; 허홍식, 1983, “고려시대의 본과 居住地.” 고려사회사연구, 아세아문화사, 서울; 이수건, 1984, “토성연구서설.”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서울; 채웅석, 1991, “本貫제의 성립과 성격.” 역사비평, 13.
- 22) 연구대상인 321개 본관, 98개 성씨 중 本貫의 形成時期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총 277개 본관, 72개 성씨였다. 본관의 형성시기에 관한 基礎情報은 『姓氏의 고향』(중앙일보사, 1994)과 『한국인의 族譜』(삼성문화사, 1992)에서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기초 정보의 내용을 각 성씨별 族譜序文 및 內容과 비교하였다. 성씨별 족보의 경우, 해방 이후 간행된 거의 모든 족보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대전의 回想社 族譜圖書館 所藏本을 사용하되, 本貫 起原의 時期 및 관련 人物이 확실한 경우만을 정리하여 본관의 형성시기로 간주하였다. 회상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족보는 비록 해방 이후의 것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족보에서 조선시기에 간행된 舊譜序文을 수록하고 있어서 족보 간행 초기부터 각 종족집단의 本貫에 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자료 분석 기간은 2000년 3월부터 同年 12월까지 10個月가량 소요되었으며, 회상사 김낙영 부장의 입회 하에 자유로운 열람이 허가되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림 1은 이렇게 파악된 결과를 0~33년은 初期, 34~66년은 中期, 67~99년은 末期로 구분하여 빈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 23) 李重煥도 高麗初期 전국 豪族들의 集居地가 된 開京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다. “고려시기에는 … 胥吏 출신으로 卿相이 된 자도 많았다. 일단 경상이 되면 그의 아들과 손자도 사대부가 되어 모두 京城에 집을 두고 居住하게 되었으므로 마침내 京城은 사대부들이 모인 땅이 되었다.”(高麗時 … 多起自胥吏而爲卿相者爲卿相則其子與孫爲士大夫咸置家於京城京城遂爲士大夫淵藪)(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 24) 『高麗墓誌銘集成』(김용선 편저, 1997,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자료총서, 10) 참고.
- 25) 劉志誠 墓誌銘, 1045년(고려 정종 11년).
- 26) 李子淵 墓誌銘, 1061년(고려 문종 15년).
- 27) 崔士威 墓誌銘, 1075년(고려 문종 29년).
- 28) 崔抗 墓誌銘, 1147년(고려 의종 1년).
- 29) 신석호, 1978, “한국 성씨의 개설.” 한국성씨대관, 창조사, 서울, 23.
- 30) 國譯 朝鮮王朝實錄 CD, 태조 001-01/08/02, 原典 1집 25면.
- 31) 國譯 朝鮮王朝實錄 CD, 태종 005 03/06/13, 原典 1집 268면.
- 32) 國譯 朝鮮王朝實錄 CD, 태종 033 17/05/14, 原典 2집 167면.
- 33) 國譯 朝鮮王朝實錄 CD, 세종 025 06/07/20, 原典 2집 615면.
- 34) 國譯 朝鮮王朝實錄 CD, 성종 167 15/06/07, 原典 10집 598면.
- 35) 國譯 朝鮮王朝實錄 CD, 성종 167 15/06/07, 原典 10집 598면.
- 36) 國譯 朝鮮王朝實錄 CD, 선조 082 29/11/02, 原典 23집 91면.
- 37) 國譯 朝鮮王朝實錄 CD, 선조 138 34/06/02, 原典 24집 261면.
- 38) 國譯 朝鮮王朝實錄 CD, 선조 194 38/12/19, 原典 25집 143면.
- 39) 空間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事象을 담아내는 고정적 실체로서보다는 역사적으로 변화하고 사회적으로 생산되며 권력의 눈에 의해 조작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관점은 역사지리학의 최근 동향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다(전종환·류제현, 1999, 170-172). 특히 權力 개념과 空間의 관계는 니체, 푸코로 이어지는 유럽의 역사철학 사상에서 주요 주제 중 하나이며 최근 社會歷史地理學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다(Baker, A.R.H., 1984; Driver, F., 1985; Butlin, R.A., 1987; Harris, C., 1991; Philo, C., 1992; Matless, D., 1992; Macquillan, A., 1995; Ogborn, M., 1996). 본문의 항목은 이같은 관점에서 本貫이 갖는 또다른 意味를 해석해보고자 한 것이다.
- 40) 채웅석, 2000, 고려시대의 국가와 지방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152-153.
- 41) 이수건, 1999, “족보와 양반의식,” 한국사 시민강좌 24, 일조각, 서울, 28; 박은경, 1996, 고려시대 향촌사회연구, 일조각, 서울, 75; 이광규, 1997, 한

- 국 친족의 사회인류학, 집문당, 서울, 65.
- 42) 백승중, 1999, "위조 족보의 유행," 한국사 시민 강좌, 24, 일조각, 서울, 77.
- 43) 이수건, 1994, "조선후기 姓貫 의식과 編譜 체계의 변화," 구국 황중동교수 정년기념 사학논총, 정원문예사, 대구, 400.
- 44) 兩亂이후에 간행된 족보들에서 그 서문 내용을 보면 얼마나 많은 족보자료들이 분실되고 소실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가령 "變起倉卒泯沒於兵之中"(恩津宋氏族譜 서문, 1599년), "壬辰之亂門長之所 集者化爲灰燼"(연안이씨 족보 서문, 1605년), "壬辰兵戈家業蕩失"(礪山宋氏族譜 서문, 1606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 직후에 간행된 족보들에서 10중 8,9는 전란으로 인한 족보 소실로 새로운 족보 간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45) 刊行始初부터 모든 族譜가 宗族構成員 전부를 기록하는 大同譜였을 가능성은 萬無하다. 아마도, 同姓異本의 여러 성씨집단이 同姓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동일한 宗族이라는 意識을 갖게 되고, 이러한 意識下에서 점차 기존에 편찬한 자신들의 派譜를 합치게 되었으며 이것을 조선중기 전후에 출현한 大同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大同譜의 출현이 갖는 의미는 同姓異本의 성씨집단들이 갖고 있던 다양한 本貫들이 同姓이라는 의식하에 하나의 本貫으로 통일되기 시작했다는 점일 것이다.
- 46) 조선시기의 주요 성씨 관련 자료인 朝鮮氏族統譜, 萬姓大同譜, 增補文獻備考, 典故大方을 참고하여 回想社에서 정리한 '관향별 성씨 일람표'를 기초 자료로 삼았다[족보회상40년사(회상사, 1993), 752-755를 참고]. 필자는 기초 자료에 표시된 舊地名들을 현재 地名으로 복원한 후 다시 현재의 행정구역별로 본관의 수를 합산하여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 47) 조선전기까지만 하여도 本貫이 같은 경우 同族 내지 同鄉意識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식은 서로간에 사회정치적 잇점을 제공하였다. 다음을 참고. "行上護軍 李尹仁이 아뢰기를 珍島郡에 정속한 사람 朴增은 신과 貫鄉이 같은 族人입니다. ..."(國譯 朝鮮王朝實錄 CD, 예종 002 00/11/19, 原典 8집 297면).

- 48) 평안도를 비롯한 兩界地方은 고려 이래 조선전기까지 남부지방의 주민을 移住시키고 새로운 本貫을 주었지만 대부분 원래의 출신지 본관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본관 수의 분포가 적게 나타난다고 본다. 그리고 국내의 유력한 本貫으로 개관하는 것 이외에도 中國의 地名을 본관으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의창공씨가 曲阜孔氏로, 웅신(웅천)주씨가 新安朱氏로 된 경우가 그것으로 이들의 본관을 權力과 社會的 地位를 象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9) "十一世孫諱 恕齊公以無后載錄者四譜皆然而忽以無據恣意填充十有餘世有若血禪相偈者然嗚呼是誰欺乎" 淸州韓氏 大同譜 五校族譜(乙丑譜) 序文中.

文獻

- 三國史記.
高麗史.
國譯 朝鮮王朝實錄 CD.
擇里志(李重煥).
萬姓大同譜(1931).
朝鮮の姓(朝鮮總督府).
朝鮮の姓氏と同族部落(朝鮮總督府).
朝鮮の聚落(下)(朝鮮總督府).
族譜類(회상사, 한밭도서관, 충남대 도서관, 대전: 충북대 도서관, 충북 중앙도서관 소장본, 청구),
萬姓族譜辭典(1964).
韓國姓氏大觀(1978).
韓國族譜舊譜序集(정병완 편, 1987, 아세아문화사, 서울).
韓國人の 族譜(삼성문화사, 1992).
族譜回想 40年史(회상사, 대전, 1993).
姓氏의 故鄉(1994, 중앙일보사).
高麗墓誌銘集成(김용선 편, 1997,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자료총서 10).
김덕현, 1983, "씨족론락의 형성과정과 입지 및 유교문화경관," 지리학논총, 10, 241-251.
김두현, 1985, "성, 씨족의 형성 발전,"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 김수태, 1981, "고려 본관제도의 성립," 진단학보, 52.
- 김창호, 1983, "신라중고 금석문의 인명표기(II)," 역사교육논집, 4집, 경북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1-21.
- 김홍식, 1989, 봉건사회의 기본구조, 박영사, 서울.
- 모리스프리트만(김광억 역), 1989, 동남부 중국의 宗族組織, 대광문화사, 서울.
- 류제현, 1996, "한국 문화·역사지리학 50년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1(2), 255-267.
- 박옥걸, 1997, "고려초기 귀화 漢人에 대하여," 한국사연구논선, 14, 아름, 서울, 129-156.
- 박은경, 1996, 고려시대 향촌사회 연구, 일조각, 서울.
- 백승중, 1999, "위조 족보의 유행," 한국사시민강좌 24, 일조각, 서울.
- 송준호, 1987, 조선사회사연구, 일조각, 서울.
- 신석호, 1978, "한국 성씨의 개설," 한국성씨대관, 창조사, 서울.
- 양보경, 1980, "반월면 4리 동족부락에 대한 연구," 지리학논총, 7, 29-52.
- 역사문화학회 편, 2000, 지방사와 지방문화, 2집.
- 이광규, 1997, 한국 친족의 사회인류학, 집문당, 서울.
- 이광규, 1992, 가족과 친족, 일조각, 서울.
- 이기백, 1974, "고려귀족사회의 형성," 한국사, 4.
- 이문중, 1988,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지리학논총, 별호 6.
- 이수건, 1984,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서울.
- 이수건, 1994, "조선후기 姓貫 의식과 編譜 체제의 변화," 구곡 황종동교수 정년기념 사학논총, 정원문예사, 대구, 395-420.
- 이수건, 1999, "족보와 양반의식," 한국사시민강좌 24, 일조각, 서울.
- 이종일, 1993, "중국에서 동래 귀화한 사람의 성씨와 그 자손의 신분 지위," 素軒 남도영 박사사회기념 역사학논총, 민족문화사, 서울, 321-337.
- 이태진, 1986, 한국 사회사 연구, 지식산업사, 서울.
- 이해준, 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서울.
- 전종한, 1995, "촌락의 공간적 확대과정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5호, 53-63.
- 전종한·류제현, 1999, "英美 역사지리학의 최근 동향과 社會歷史地理學," 문화역사지리, 제11호, 169-186.
- 채웅석, 1991, "본관제의 성립과 성격," 역사비평, 13.
- 채웅석, 2000, 고려시대의 국가와 지방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 최기엽, 1986, "한국촌락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지리학연구보고, 14.
- 허홍식, 1983, "고려시대의 본과 거주지," 고려사회사연구, 아세아문화사, 서울.
- 今村革丙, 1934, 朝鮮の姓名氏族に關する研究調査, 조선총독부.
- 旗田巍, 1972, "高麗王朝成立期の府と豪族," 韓國中世社會史の研究.
- 水津一郎, 1969, 社會集團の生活空間-その社會地理學的研究, 大明堂, 東京.
- 水津一郎, 1980, 社會地理學の基本問題, 大明堂, 東京.
- 丹羽弘一, 1998, "支配-監視の空間, 排除の空間 - '住むこと' から '居住地' へ," 空間から場所へ - 地理學的想像力の探究 -, 古今書院, 東京, 76-87.
- Baker, A.R.H., 1984, Reflections on the relations of historical geography and the Annales school of history, In Baker, A.R.H. and Gregory, D.(eds), *Explorations in Historical Ge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27.
- Butlin, R.A., 1987, Theory and methodology in historical geography, in Pacione, M.(ed), *Historical Geography: Progress and Prospect*, Croom Helm, 16-45.
- Driver, F., 1985, Power, space, and the body: a critical assessment of Foucault's Discipline and Punish,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 425-446.
- Harris, C., 1991, Power, modernity, and historical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1(4), 671-683.
- Macquillan, A., 1995, New classics and diverse

- clusters in historic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9(2), 273-284.
- Matless, D., 1992, An occasion form geography: landscape, representation, and Foucault's corpu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0, 57-66.
- Ogborn, M., 1996, History, memory, the politics of landscape and space work in historical geography from autumn 1994 to autumn 1995,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0(2), 222-229.
- Philo, C., 1992, Foucault's geograph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0, 137-161.

(2001년 1월 29일 접수)